

해외건설 - 중국의 급부상과 대응 전략

최 필 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은 2009년부터 ENR이 집계하는 글로벌 건설업체 랭킹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 2010년의 경우, ENR은 중국의 매출액이 570억 달러로 449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에 크게 앞섰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부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이다. 공중과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이 많은 부분 중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원고는 중국 해외건설의 성장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배경을 알아본 후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해외건설 수주 증가세 '폭발적'

중국의 해외건설 수주액 및 매출액 현황을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데이터는 중국 상무부 통계이다. ENR 보고서가 국가별·지역별 비교를 제시하고 있어 유용하긴 하지만, 업체들의 자발적인 보고에 따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 업체들은 국유 기업의 경우 외국 미디어에 알려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ENR에 보고하지 않

도 하고, 반대로 지방 기업이나 민영 기업은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따라서 ENR에 나타난 숫자가 정확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은 922억 달러로 ENR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상무부의 집계에 기초하여 중국 해외건설의 성장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89년만 해도 18억 달러에 못 미치던 수주액이 1999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8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베이징 화연(華研)경제연구센터의 전망에 따르면 2013년에는 수주액이 2,0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중국에 밀려

그렇다면 중국의 해외건설 경쟁력은 한국과 비교하여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중국의 해외건설 실적을 지역별·공종별로 한국과 비교하면 <표 2> 및 <표 3>과 같다.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는 편의상 ENR 보고서를 인

〈표 1〉 중국의 해외건설 수주액 및 매출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연도	수주액	매출액	연도	수주액	매출액
1989	17.81	14.84	2002	150.55	111.94
1990	21.25	16.44	2003	176.67	138.37
1991	25.24	19.70	2004	238.44	174.68
1992	52.51	24.03	2005	296.14	217.63
1993	51.89	36.68	2006	660.05	299.93
1994	60.28	48.83	2007	776	406.43
1995	74.84	51.08	2008	1,046	566.12
1996	77.28	58.21	2009	1,262	777.06
1997	85.16	60.36	2010	1,344	922.00
1998	92.43	77.69	2011e	1,545	1,106.00
1999	101.99	85.22	2012e	1,776	1,382.00
2000	117.19	83.79	2013e	2,043	1,728.00
2001	130.39	88.99	2014e	2,349	2,160.00
			2015e	2,702	2,700.00

주 : e는 예측치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및 「2011~2015 중국 해외건설시장 연구 및 미래 계획 연구」.

용¹⁾했으며, 공종별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외 건설협회 통계와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이용했다.

먼저, 지역별로 양국 모두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주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은 중동에서만 중국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국 대비 실적은 각각 9.3%와 20.9%에 불과하다.

중남미에서도 중국은 33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린 반면 한국은 중국에 비해 22% 수준의 실적만을 올렸을 뿐이다. 신흥 시장뿐 아니라 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도 한국의 매출액은 중국의 3.9%에 그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이 우세를 지키고 있는 중동 시장에서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

〈표 2〉 한·중 해외건설 지역별 매출액 비교(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총매출액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캐나다	중남미
중국	57,062.4 (14.9)	10,009.2 (13.8)	17,409.9 (22.7)	23,467.7 (38.7)	2,443.1 (2.6)	389.3 (1.2)	2.6 (0)	3,342.6 (9.8)
한국	18,313.2 (4.8)	11,146.9 (15.4)	3,634.1 (4.7)	2,186.1 (3.6)	95.5 (0.1)	507.9 (1.6)	4.9 (0)	737.9 (2.2)
한국/중국	32.1	111.4	20.9	9.3	3.9	130.5	188.5	22.1

주 : 괄호 안은 해당 국가의 각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

자료 : ENR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and Global Contractors 및 필자 계산.

1) 중국 상무부 통계는 중동 국가들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섞어서 배치하고 있으므로 한국 통계와 일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특집 해외건설 ... 살피고, 헤아리고, 준비하라

〈표 3〉 한·중 해외건설 공종별 수주액 비교(2010년)

(단위 : 억 달러, %)

구분	건물	전력 공업	교통 인프라	석유 화학	전자 통신	제조 가공	상하 수도	광산 개발	환경 보호	기타
중국	280.9	280.0	290.8	160.5	112.6	77.0	53.6	13.2	2.4	73.1
한국	65.4	338.8	36.7	184.6	4.6	57.2	15.1	0.0	1.2	0.0
한국 /중국	23	121	13	115	4	74	28	0	52	0

주 : 한국과 중국의 공종 구분이 상이하여 중국의 구분을 기초로 한국의 공종을 배치함.
 자료 : 한국 해외건설협회,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2011. 10), RICE 보고서(2010. 6).

히 미국의 對이란 제재 조치에 한국이 역이면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종별 수주액을 비교하면 2010년 현재 한국은 전력공업²⁾과 석유화학에서 중국에 앞서고 있는 반면, 나머지 토목 인프라 건설이나 일반 건물 부문에서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물이나 교통 인프라, 상하수도 등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공종은 대부분 중국 국내 건설이 활발한 분야이다. 세계 최장급 해상 교량이라는 항저우만대교,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 설비인 삼협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에 부설된 티벳 철도 등 중국 업체들은 건설사에 남을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켜 왔다.

중국 건설업계의 해외 경쟁력

이러한 중국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 경쟁력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 업체 관계자는 토목부문에서 중국의 단가가 한국의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中國建築企業 國際競爭力

(2009)』에 따르면 중국 건축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일본의 3%, 미국의 5%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제 설비는 국제 가격의 70% 수준이며 시멘트 조달 비용도 (아프리카) 현지 가격의 40%에 불과하다.

둘째, 유리한 금융 조달 조건이다. 일단 중국 정부의 개도국 대상 차관의 일차적 수혜자가 중국 건설업체이다. 중국 정부가 정확한 규모와 지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2009년 한 해에만 최소한 3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이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아프리카개발펀드(CADF)만 해도 그 규모가 5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차관의 거의 대부분은 경제 기반시설 구축, 공공시설 건설,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중국 건설업체에 지급된다. 순수한 차관 외에도 중국수출입은행, 국가개발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 집행 기관과 사실상 국유 은행인 일반 상업은행들도 매우 유리한 조건에 건설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우리나라 시장 개척 자금을 해당하는 對外經濟技術特別協力資金이 매년 10억 위안(약 1억 6,000만 달러) 가량 집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개도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 일반적인 방법으로

2) 전력공업 부문의 한국 실적은 2010년이 유달리 높았으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중국의 30~60% 수준이었다.

는 금융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중국 건설업계에 커다란 버팀줄이 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다. 중국 정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불간섭주의'의 원칙 아래 무차별적인 지원 외교를 펼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제약받는 국제 정치 구조에서 중국은 자유롭다.

해외 공관 숫자 및 담당 참사관의 숫자에서도 중국은 한국을 압도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한국의 공관 숫자는 14개인 데 비해 중국은 43개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중국은 14명의 경제 참사관들이 상무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데 비해 한국은 단 한 명의 에너지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OTRA와 KOICA 인원을 다 합해도 물량적으로 중국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중국 업체들은 한국의 업체가 그렇듯이 매우 근면하고 학습 효과가 빠르다. 공중별 현황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은 자국의 건설 노하우를 축적하여 해외에서 발휘할 줄 아는 나라다. 한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돌관 작업이나 전일 3교대 시공 등을 엔지니어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하나가 되어 해내고 있다.

물론 중국은 국제화 경험이 짧고, 일부 첨단 플랜트 분야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등의 약점이 있다. 또한 저가 수주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공액이 계약액을 초과하여 손해를 입거나 지나치게 쉬운 자본 조달로 이윤 창출의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중국 업체의 약점으로 꼽힌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한국 해외건설업체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지

렛대이다.

경쟁자이자 협력자로

먼저, 중국의 자금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57억 달러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순다대교 건설과 같이 최근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업체가 담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국제 입찰 경쟁력과 중국의 풍부한 자금이 결합되어 성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은행들은 점점 더 다양한 대출 대상을 찾기 시작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해외건설업계에 자금 제공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심지어 일본처럼, 건설업 자체를 엔지니어링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이 조달과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에 집중하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발상이다. 그러나 엔지니어링화는 높은 마진과 업계 규모 축소를 동시에 초래하는 양날의 칼과 같으므로 업계와 정부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건설 지원 역량을 혁신적으로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교적 지원, 공관 숫자 및 인원 확충은 물론 좀 더 '쉬운 자본'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국제 정치 행위에 동참함에 있어 좀 더 실리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으며, 바로 그 중국의 건설업체들이 우리 건설업계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이자, 잠재적인 협력자이기 때문이다. CERIK